

보도일자

2014. 8. 13. (수) 조간

2014 ESG 등급 부여 및 공표

I 개요
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(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, 이하 CGS)은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(E), 사회책임경영(S), 지배구조(G)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, 이 가운데 우수한 ESG 등급을 가진 기업들을 공표하고 포상해 왔음
 - ESG 등급 공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
- ESG 등급은 ESG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7등급 체계로 구분되며 ESG 통합 등급과 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의 개별 부문에 대한 등급이 부여됨
 - 7등급은 S, A+, A, B+, B, C, D이며 S등급은 ESG 이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임을 의미하고 D등급은 ESG 이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임을 의미함
 - 지배구조 등급은 2013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등급을 공표함
 - ESG 통합 등급과 사회책임경영·환경경영의 개별 등급은 ‘B+’ 등급 이상인 기업만 공개함

II 지배구조 등급

□ 2014 지배구조 등급 현황

- CGS의 2014년도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 주권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한 결과, 전체 기업의 76.5%가 ‘B’ 와 ‘C’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위험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실제, 금년도 평가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44개사였으며 이 중 59%에 해당하는 기업이 'B' 와 'C' 등급에 속함
- 'S' 등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이 없고 'A+' 과 'B' 등급은 각각 13개사, 308개사로 전년 대비 0.9%p, 1.1%p 상승함
- 반면, 'A' 와 'B+' 등급은 각각 30개사, 111개사로 전년 대비 0.2%p, 0.3%p 하락하였고 'C' 와 'D' 등급도 각각 전년 대비 1.1%p, 0.4%p 감소함

〈표 1〉 연도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등급	2013년	2014년	증감 여부
S	0 (0.0)	0 (0.0)	-
A+	7 (1.0)	13 (1.9)	▲0.9%p
A	31 (4.5)	30(4.3)	▽0.2%p
B+	113 (16.3)	111 (16.0)	▽0.3%p
B	300 (43.3)	308 (44.4)	▲1.1%p
C	230 (33.2)	223 (32.1)	▽1.1%p
D	12 (1.7)	9 (1.3)	▽0.4%p
총합	693 (100.0)	694 (100.0)	

□ 2개년도 등급 변경 추이

- 2013년과 2014년도 평가 대상기업 중 동일기업 677개사를 대상으로 등급 변경 현황을 살펴본 결과, 203개사(30.%)의 등급이 변경됨
-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70개사(10.3%)로 'B' 와 'C' 등급에서 전년 대비 등급 상승이 가장 많았고, 하락한 기업은 133개사(19.6%)로 'B' 등급에서 가장 많은 등급 하락이 나타남

〈표 2〉 2014년도 등급별 변경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등급명	등급 상승	등급 유지	등급 하락
S	0(0.0)	0(0.0)	0(0.0)
A+	0(0.0)	5(1.1)	2(1.5)
A	6(8.6)	21(4.4)	7(5.3)
B+	9(12.9)	74(15.6)	32(24.1)
B	27(38.6)	253(53.4)	86(64.7)
C	25(35.7)	121(25.5)	6(4.5)
D	3(4.3)	0(0.0)	0(0.0)
합계	70(100.0)	474(100.0)	133(100.0)

- 등급 하락은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의 저하 뿐 아니라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의 횡령·배임 또는 분식회계 등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등급 하락 기업의 18.8%가 횡령배임 등 지배구조상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인 「이사회」와 「감사기구」의 독립성 및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임

□ 자산규모별,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별 지배구조 등급 분포

- 분석 대상기업을 자산규모별,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별로 구분하여 지배구조 등급 분포를 살펴본 결과, 자산규모가 클수록,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일수록 지배구조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지배구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보다 엄격한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높은 지배구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지배구조 규제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
<표 3>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	2조 이상 ~	1조 이상 ~ 2조 미만	5천억 이상 ~ 1조 미만	1천억 이상 ~ 5천억 미만	~ 1천억 미만	합계
S	-	-	-	-	-	0(0.0)
A+	12(92.3)	-	1(7.7)	-	-	13(100.0)
A	28(93.3)	1(3.3)	-	1(3.3)	-	30(100.0)
B+	64(57.7)	15(13.5)	11(9.9)	20(18.0)	1(0.9)	111(100.0)
B	29(9.4)	27(8.8)	64(21.1)	160(51.9)	27(8.8)	308(100.0)
C	6(2.7)	15(6.7)	30(13.5)	118(52.9)	54(24.2)	223(100.0)
D	1(11.1)	1(11.1)	-	2(22.2)	5(55.6)	9(100.0)

<표 4> 대규모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지배구조 등급 분포 (단위 : 개사, %)

	2013년		2014	
	대규모 기업집단	非 대규모 기업집단	대규모 기업집단	非 대규모 기업집단
S	0(0.0)	0(0.0)	0(0.0)	0(0.0)
A+	4(2.0)	4(0.8)	6(3.0)	7(1.4)
A	22(10.9)	12(2.4)	21(10.4)	9(1.8)
B+	75(37.3)	40(8.1)	71(35.3)	40(8.1)
B	79(39.3)	296(60.2)	79(39.3)	229(46.5)
C	20(10.0)	138(28.0)	22(10.9)	201(40.8)
D	1(0.5)	2(0.4)	2(1.0)	7(1.4)
합계	201(100.0)	492(100.0)	201(100.0)	493(100.0)

□ 지배구조 수준과 기업가치(성과) 관계 분석

- CGS의 지배구조 등급 가운데 ‘B+’ 등급 이상 등급(양호기업군)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‘B’ 등급 이하 등급(취약기업군)은 지배구조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
- 양호기업군과 취약기업군 간의 기업가치(성과) 차이를 살펴본 결과, 기업가치 및 성장성을 나타내는 Tobin’ s Q와 기업성과 수준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모두에서 양호기업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두 기업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보다 지배주주와 최고경영자의 사적이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기업가치와 경영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

〈표 5〉 비교기업군 간 기업가치 및 성과 지표 비교

측정 변수	양호기업군	취약기업군	t
Tobin’ s Q	1.265	1.046	2.609***
영업이익률	10.609	3.988	3.560***

주) ***는 99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함

III ESG 통합 및 환경경영(E), 사회책임경영(S) 등급

□ 2014 ESG 통합 및 환경경영(E), 사회책임경영(S) 등급 현황

- 2014 ESG 등급부여 결과,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49개사 가운데 ‘B+’ 이상의 ESG 통합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137개사(19.3)로 전년 대비 6개사(0.4%p) 증가함
- 실제, 금년도 평가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44개사였으며 이 중 59%에 해당하는 기업이 ‘B’ 와 ‘C’ 등급에 속함
- 환경경영 부문의 경우 ‘B+’ 등급 이상의 기업은 181개사(26.1%)로 전년 대비 2.4%p 상승한 반면, 사회책임경영 부문의 ‘B+’ 등급 이상 기업은 144개사(20.7%)로 전년 대비 0.4%p 하락함

<표 6> ESG 등급 부여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	ESG 통합		환경경영(E)		사회책임경영(S)	
	2013년	2014년	2013년	2014년	2013년	2014년
S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
A+	6(0.9)	2(0.3)	6(0.9)	6(0.9)	10(1.5)	4(0.6)
A	34(4.9)	44(6.3)	36(5.2)	40(5.8)	46(6.6)	59(8.5)
B+	91(13.1)	88(12.7)	122(17.6)	135(19.5)	90(13.0)	81(11.7)
B	344(49.6)	351(50.6)	299(43.1)	309(44.5)	249(35.9)	273(39.3)
C	218(31.5)	209(30.1)	205(29.6)	174(25.1)	298(43.0)	277(39.9)
D	0(0.0)	0(0.0)	25(3.6)	30(4.3)	0(0.0)	0(0.0)
계	693(100.0)	694(100.0)	693(100.0)	694(100.0)	693(100.0)	694(100.0)

□ 자산규모별, 대규모 기업집단별 지배구조 등급 분포

- ESG 통합 등급을 자산규모별,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산규모가 클수록,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ESG 통합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지배구조(G) 등급 분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더 엄격한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, 사회책임경영(S)과 환경경영(E)을 추진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데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ESG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

<표 7> 자산규모별 ESG 통합 등급 부여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	2조 이상 ~	1조 이상 ~ 2조 미만	5천억 이상 ~ 1조 미만	1천억 이상 ~ 5천억 미만	~ 1천억 미만	합계
S	-	-	-	-	-	0(0.0)
A+	2(100.0)	-	-	-	-	2(100.0)
A	42(95.5)	2(4.5)	-	-	-	44(100.0)
B+	57(64.7)	10(11.4)	11(12.5)	10(11.4)	-	88(100.0)
B	31(8.8)	42(12.0)	72(20.5)	182(51.9)	24(6.8)	351(100.0)
C	8(3.8)	5(2.4)	24(11.5)	109(52.2)	63(30.1)	209(100.0)
D	-	-	-	-	-	0(0.0)

<표 8> 대규모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ESG 등급 분포 현황 (단위 : 개사, %)

	ESG 통합		환경경영(E)		사회책임경영(S)		지배구조(G)	
	L	non_L	L	non_L	L	non_L	L	non_L
S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	0(0.0)
A+	2(1.0)	0(0.0)	6(3.0)	0(0.0)	4(2.0)	0(0.0)	6(3.0)	7(1.4)
A	36(17.9)	8(1.6)	36(17.9)	4(0.8)	51(25.4)	8(1.6)	21(10.4)	9(1.8)
B+	61(30.3)	27(5.5)	65(32.3)	70(14.2)	56(27.9)	25(5.1)	71(35.3)	40(8.1)
B	88(43.8)	263(53.3)	53(26.4)	256(51.9)	69(34.3)	204(41.4)	79(39.3)	229(46.5)
C	14(7.0)	195(39.6)	36(17.9)	138(28.0)	21(10.4)	256(51.9)	22(10.9)	201(40.8)
D	0(0.0)	0(0.0)	5(2.5)	25(5.1)	0(0.0)	0(0.0)	2(1.0)	7(1.4)
합계	201(100.0)	493(100.0)	201(100.0)	493(100.0)	201(100.0)	493(100.0)	201(100.0)	493(100.0)

주) 'L' 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군이고, 'non_L' 는 비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군을 의미함

□ ESG 수준과 기업가치(성과) 관계 분석

- ESG 통합 등급 가운데 ‘B+’ 등급 이상 등급(양호기업군)은 상대적으로 ESG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‘B’ 등급 이하 등급(취약기업군)은 ESG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
- 기업가치 및 성장성 지표인 Tobin’s Q와 기업성과 지표인 영업이익률을 통해 양호기업군과 취약기업군 간의 기업가치(성과) 차이를 살펴본 결과, 기업가치와 성과 측면 모두에서 양호기업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비교집단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ESG 우수기업의 경우 관련 비용 대비 더 많은 수익 창출과 잠재적 경영위험의 감소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함

〈표 9〉 ESG 수준별 비교기업간 기업가치(성과) 비교

측정 변수	비교 집단	지배구조		사회책임경영		환경경영		ESG 통합	
		mean	t	mean	t	mean	t	mean	t
Tobin’s Q	B+ 이상	1.265	2.609***	1.293	2.860***	1.157	1.432	1.303	3.977***
	B 이하	1.046		1.042		1.072		1.044	
영업이익률	B+ 이상	10.609	3.560***	9.778	2.851***	5.918	0.350	8.679	2.026**
	B 이하	3.988		4.327		5.297		4.688	

주) ***, ** 는 각각 99%, 95%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

- 붙임 1. 2014 ESG 등급 부여 및 공표
 2. 2014년 ESG 등급별 기업 리스트

※ 담당부서 및 담당자 : ESG 평가부문 오덕교 팀장 (02-3775-3701, deokkyo@cgs.or.kr)
 ESG 평가부문 안세환 연구원 (02-3775-3703, Steve.Ahn@cgs.or.kr)